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변 우 열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도 예외 없이 새로운 천년에는 도서관이 명실공히 정보시대의 기수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차분하게 열어가고 있다.

21세기에는 도서관이 정보사회의 기수가 될 것이라는 뚜렷한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실증적인 예로 2000년 1월 30일 국영방송사인 KBS 1TV가 9시 뉴스 집중기획을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중심기지」라는 오늘의 도서관 현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국영방송사가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뉴스가 아닌 집중취재로 보도한 것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기획보도는 2월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내각에 「도서관 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3월 14일 문화관광부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예산의 규모, 대상 도서관의 종류, 정보화 추진계획의 내용에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평소 학교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에게 또 한가지 놀랄만한 획기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월 31일 KBS 1TV 9시 뉴스의 집중취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시설 그리고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실이다. 드디어 국영방송사인 KBS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학교도서관은 입시제도에 밀려 공부방 내지는 독서실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전국 10,351개 학교중에서 20% 정도는 아예 학교도서관 시설조차 없고,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도 거의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학교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100㎡도 안되는 영세한 규모이고,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도 되지 않으며, 전국의 사서교사는 겨우 141명이고, 학교당 도서관 연간예산은 215만원 정도이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열악한 실정으로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문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암기나 주입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을 선택하고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종합하여 표현하는 능력 즉 정보활용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서교육을 교과학습과 연계시켜 풍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자료중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인터넷망만 구축하면 교육정보화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컴퓨터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교육정보화를 이야기하면서 컴퓨터 보급대수가 몇대이며 기종은 무엇이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 하는 문제만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소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확보한 다음에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에는 학교도서관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장학사는 물론 담당직원조차도 한명 없는 실정이어서 학교도서관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관공별 도서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는 발전에 대한 자생적인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적어도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서와 학술잡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전문도서관에서는 소속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구비하여야 한다는 자생적인 요구가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교육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살아야만 공공도서관도 살고, 대학도서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도서관인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기술이 습득되어야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학공식, 화학분자식 하나를 더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활용능력의 유무에 의해서 개인의 우월이 결정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없이는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해방후 처음으로 정부가 「도서관 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KBS가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도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언론기관이 전개하고 있는 도서관 살리기 운동 특히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세기에는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학교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와 교과담당교사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래! 아직은 학교도서관만이 희망이다!